

01 목회권면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발맞추어 본 교회의 방침에 따라 성도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온라인예배는 오전 11시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02 온라인예배

온라인예배 가이드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9월 6일) 때부터 1) 유치, 초등부, 2) 중고등부, 3) 청년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예배, 금요일도회는 쉽니다.

03 온라인 새벽예배

8월 31일(월)부터 새벽예배를 온라인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www.1msch.com)에 접속하시면 오전 6시부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04 코로나 정상화

코로나 19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온 교인 한 마음 성경 필사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온 교인 한마음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로 향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 기간 : 9월 1일(화)~11월 30일(월)
- * 참여대상 : 제일명성교회 온 교인과 가족
- * 담당교역자 : 문성우목사
- * 상임부장 : 정유진권사
- * 총무 : 차덕조집사, 이현경집사

교우 소식

결혼 : 김유림(한상준)집사 딸 결혼, (8월 30일)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2.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을 위하여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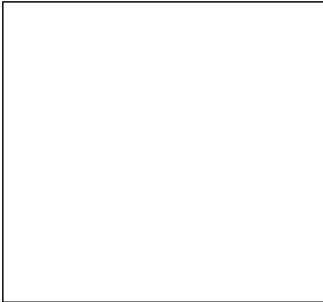
8월 30일
7권 35호

*여는찬양	주기도문
*예배선포	인도자
*찬송	9장
*공동기도문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90장
기도	문성우 목사
교회소식 새가족환영	인도자
오늘의말씀	대상 13:13-14
찬양	최슬기 성도
오늘의말씀	“ 멈추게 하심 ” 윤호식 목사
봉헌	370장
*친교	다같이
*송영	진리와 생명되신 주(630장)
*축도	윤호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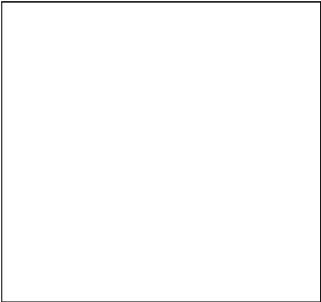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전도사	김상태, 장중현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반주자	김범준, 김슬기, 박은영, 하은미

오후2시



오후7시



8/31(월)	사 39:1-8
9/1(화)	창 37:1-17
9/2(수)	창 37:18-36
9/3(목)	창 38:1-30
9/4(금)	창 39:1-23
9/5(토)	창 40:1-23



■대표기도	1부	2부	3부
-------	----	----	----



1. 월례회 및 각종 모임

각종 부서 월례회 및 모든 종류의 모임을 중단합니다. 특별한 자침이 있기 전까지 공모임 뿐 아니라 교회 내 친교 모임 또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 난 주 등 록

■ 2020년도 등록자				
신주희	박선민	이미정	김지영	김일근
최병주	윤미란	김완수	이향호	변춘식
심주원	진미숙	손미정	김성호	홍성인
남기해	이원규	심은숙	이응창	정희숙

제 목: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5:4)

‘애통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펜톤데스입니다. 원형 펜데오는 슬퍼 하다는 뜻인데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신음하다 슬피 울다는 뜻입니다. 슬픈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장면이 있습니다. ♣창37: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얼마나 슬픈지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두르고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 합니다. 그러나 애통함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창37:35“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얼마나 슬프니까? 자녀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아들 따라서 죽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애통하는 자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통하는 것을 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애통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받을 것임이요’에서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는 <결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합쳐보면 결으로 부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결으로 부르셔서 위로하며 그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함이 원통함이나 분통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아프도록 슬피 우는 애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연약함에 애통했습니다. ♣롬7:21-24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와 이윤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수님등 애통해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보아야 우리가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자녀? 회사?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눈물로, 기도로 표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허스기야의 기도예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를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울게 두시지 않습니다. 애통할 일 이후에는 분명 웃게 하여 주십니다. ♣눅6:20-21 “...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온라인현금안내

국민은행 6383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예) 십일-홍길동, 감사-홍길동



	축구	탁구	바둑	족구	등산	볼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